

〈이씨세대록〉에 나타난 비례(非禮)의 혼인과 그 의미

탁원정*

— <차 례> —

1. 서론
2. 〈이씨세대록〉에 나타난 비례(非禮)의 혼인
3. 비례(非禮)의 혼인이 지니는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이씨세대록〉에는 비례(非禮)의 혼인이 여러 차례 나타나면서, 혼사담의 한 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특히 이부 인물들의 혼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남성 인물들의 경우, ‘폐장 논의를 불러온 불고이취’, ‘내종형제 간 이중 혼인’과 ‘속임수에 의한 혼인’이, 여성 인물들의 경우 ‘재종간의 혼인’과 ‘시녀로 대한 남자와의 혼인’이 나타나고 있다.

이부의 종손인 이흥문의 불고이취는 폐장(廢長) 논의를 불러오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정혼자에 대한 퇴혼과 순서 바뀐 혼인이라는 또 다른 비례의 혼인을 연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이흥문과 이백문 내종형제가 한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인 이중 혼인은, 삼강오륜을 호된 사건으로 이부를 벗어나 황제의 손아래 논죄된다. 이경문이 유현명이라는 다른 신분을 거쳐가는 상황에서 빚어진 속임수 혼인은, 그 속임수가 탄로나는 과정에서 ‘혼인의 유지’는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고 옹서 갈등이 전면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몽현의 장녀 이미주와 재종간인 철수와 혼인은 근친혼에 대한 분분한 논의 속에서 결국 성사되지만, 그에 연계된 부부 간의 불협화음이 혼인 이후에도 지속된다. 어릴 때 실종되어 시녀로 살다가 이부의 딸로 복원된 필주소저와 그녀를 시녀로 알고 겁박했던 왕생과의 혼인은, 누구에 대한 겁박인가 하는 분분한 논란 속에서 성사되지만, 결국 혼례 날까지도

*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일방적인 동침이 이루어지는 문제의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이부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비례의 혼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극적이거나 파격적인 사건 설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비례의 혼인이라는 점에서 혼인 성사 여부를 둘러싼 분분한 논쟁 상황을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속에서 비례의 혼인은 단순한 흥미소만이 아니라, 혼인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나 입장, 혼인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는 계기로 기능하고 있다. 나아가 이 혼인 유형에서 포착되는 지점들, 즉 중심 가문에 대한 회의, 비례에 대한 이완된 인식, 이상적 남성 인물들의 다중 성향 노출은, 정상적인 혼인 과정에서 비교적 공고해 보이는 지배담론의 균열을 드러내 준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비례의 혼인 유형에 초점을 맞출 때, <이씨세대록>은 지배담론에 긴박되지 않은 역동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비례의 혼인, 불고이취, 이중혼인, 재종간 혼인, 지배담론의 균열

1. 서론

<이씨세대록>은, 장편가문소설 <쌍천기봉>과 연작 관계에 있는 작품으로, 이현 가문의 1,2대 이야기가 주 서사를 이루는 전편에 이어, 이현 가문의 3,4대 이야기가 주 서사를 이루고 있다. <이씨세대록>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단독 연구보다는 장편가문소설과의 비교 맥락 안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대부분 <쌍천기봉>연작으로 함께 다루어져 왔다.¹⁾ 장

1) 김진세, 『한국 고전대하소설 연구: 이씨세대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8, 서울대학교, 1983, 장시광, 『쌍천기봉 연작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6, 최길용, 『<쌍천기봉> 연작형소설연구』, 『고소설연구논총 다국어수용선생 회갑기념논총』 1988,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明史 수용과 의미: 靖難之變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6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장시광, 『<쌍천기봉> 연작의 이야기 결합방식』, 『동방학』7권,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1, 장시광, 『<쌍천기봉>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동방학』9권,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3, 장시광, 『<이씨세대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과 그 의미』, 『동방학』10권,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4, 이선형, 『<쌍천기봉> <이씨세대록> 인물의 성장 의미』, 국민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시광은 <쌍천기봉>연작에 대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 왔는데, 그 중에서 <이씨세대록>의 여성반동인물을 대상으로 한 논의²⁾는,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근거를 다양하게 포착하고 이를 당대 여성의 현실과 연결시켜 의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이선형의 연구³⁾는, 장편 대하소설이 인물의 성격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여러 단서를 마련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쌍천기봉>연작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인물의 성장 유형과 의미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대하장편 인물 분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기존 연구 경향에서 알 수 있듯이, <이씨세대록>은 전편인 <쌍천기봉>과의 관계 안에서 주로 다루어지면서, 작품의 독자적인 성격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씨세대록>은 전편인 <쌍천기봉>에 비해 인물이나 사건 등이 훨씬 복잡다단해졌다. 2대 인물인 이몽현, 이몽창의 각각 10자녀 이상 인물들의 혼사담이 펼쳐지면서 다양한 만남과 결연담이 나타나고, 한왕과 이부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과 군담 또한 전편에 비해 확대, 심화되고 있으며, 혼인 과정에서의 가문 간 결합이나 이해관계의 양상 또한 복잡해졌다. 그 과정에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층위가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작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층위이자 작품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다른 가문소설들과 마찬가지로 자손들의 혼사담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여성 반동인물을 통해 작품의 성격을 규명해보려 한 것도, 그들의 행위반경이 혼인 언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작품의 시작과 끝이 혼사담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2) 장시광(2004), 위의 논문.

3) 이선형(2010), 위의 논문.

이날 정도로 수많은 혼사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씨세대록>의 독자적인 성격의 결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혼사담은 과연 어떤 것일까. 다행히 <이씨세대록>은 작품 초반부터 눈길을 끄는 혼사담이 나타나고 있어 고민을 덜어준다. 그것은 바로 이부 손녀와 철부 손자 간의 재종간 혼사담으로, 재종간 혼인이라는 근친혼의 성사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후의 서사에서도 폐장 논의까지 불러온 불고이취나 내종형제를 대상으로 한 이중 혼인 등 일반적인 혼인 예법에서 비껴난 혼인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혼인 성사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적이고 분분한 양상을 띤다. 과격적이고 문제적인 혼인 설정과 이를 둘러싼 혼인 담론의 양각화, 이를 <이씨세대록> 혼사담의 특징이라고 선불리 말할 수 없겠지만 분명 일정한 유형성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런 유형성의 본질과 의미는, <이씨세대록> 혼사담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에 제시한 혼인들을 ‘비례(非禮)의 혼인’⁴⁾으로 명명하고, 이들 혼인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분석한 후, 이들 혼인이 지닌 의미를 진단하고자 한다. 혼인의 성격과 성사 과정에 주목한 논의이므로, 혼인 이후의 서사는 논의에 필요한 부분을 임의로 추려 다루고 있음을 밝혀둔다.⁵⁾

4) 위에 제시한 혼인들은 실상 비정상적 혼인 혹은 문제적 혼인이라는 명명이 더 적합하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인 혼인 절차를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비례(非禮)의 혼인으로 명명한다.

5) 대상 텍스트는 장서각본 26권 26책이다.

2. <이씨세대록>에 나타난 비례(非禮)의 혼인

1) 이부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비례(非禮)의 혼인

(1) 폐장 논의를 불러온 불고이취(不告而娶)

이몽현의 장자이자 이부의 종손인 이흥문은, 정혼한 노몽화를 추녀로 잘못 알고 혼례일을 피해 집을 떠났다가 남창 양상서의 딸 양소저와 혼인한 후 돌아온다. 자신이 염원하던 미인인 양소저를 본 이흥문은 양상서에게 자신을 금주인이라고 속이고 부모가 임의로 취처하라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혼례를 치른다.

싱이 ㅁ마니 생각ㅎ디 닉 임의 고티 아니고 나오미 죄를 넘을 거시니 이리
ㅎ나 더리ㅎ나 혼 번 맞기는 혼가지라 일시 슈칙은 관계티 아니ㅎ고 닉 종신
대스를 츄마 그런 흥물을 싹ㅎ리오 임의 취처혼 후는 부모도 다시 노가를
뉴렘티 못ㅎ시리니 왜히 취ㅎ미 묘타 ㅎ고 이에 디왈 가친이 과연 님힘의
ㅎ시디 경스의 가니 승상고 뵈고 너비 구혼ㅎ야 아릅다운 처지 잇거든 임의
로 취ㅎ라 ㅎ야 계시니 쇼싱이 둥도의 와 대인의 후은을 넘소모른 싱각디
아니ㅎ은 배라 가친 명이 그러ㅎ시고 대인이 이리툷 소즈를 권권이 익홀ㅎ
시니 그 명을 역ㅎ미 가티 아네티라 권도로 존명을 맞들고져 ㅎㄴ이다(권2)

부친의 수책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순간 이흥문을 압도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 치는 양소저를 놓칠 수 없다는 일념이며, 그렇기에 혼례날 밤 동침 또한 거침없다.⁶⁾ 그러나 이런 거침없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흥문이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자, 아버지 이몽현은 너무

6) 전편인 <쌍천기봉>에서도 이흥문의 숙부인 이몽창이 첫제부인 상씨가 죽어 금주에 장사지내고 올라오던 길에 호광땅에서 소월혜를 보고 반해 불고이취한다. 그러나 이몽창은 불고이취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 혼례는 치르되 동침은 하지 않는다.

어이없어 헛웃음을 치고는 불고이취의 상대자인 양상서부터 문제삼는다.

부매 텅파의 어히업서 도로혀 웃고 곁오디 흥문을 어이 그르다 흐리오 혹
싱과 옥썬 불초흐야 즈식이 이리 불초흐니 늙의 톨술 삼오미 가쇠어니와 양
세경이 었디 사회를 어드매 그 부모를 못디 아니하고 호방호 아히를 달닌
여 쏘노써 맞디미 그 네를 모르미 짐짓 흥문의 악당이 되염죽흐도다 혼인
흐미 그처로 신속홀 거시면 뉘 근심흐리오 (권2)

부모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사위를 얻었으니 그렇게 예의를 모른다면 흥문의 장인이 될 만하다고 양상서를 비꼬고 있는데, 사실은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흥문 쪽에서 신분을 속인 것이다. 또한 양상서는 본래 명문거족과의 혼사를 부담스러워하던 입장이었기에 오히려 이부의 존재를 알았다면 혼인이 성사될 수 없었을 것이다.⁷⁾ 결국 이런 정황들은 불고이취가 잘 알고 있는 양가 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어 이몽현은 폐장(廢長) 선언을 하는데, 이로 인해 이부에서는 폐장 관련 분분한 논의가 벌어진다.

과연 불초호 흥문의 죄목소실이 여츠흐야 죄악이 크게 창누흐여시니 일
노써 대중을 밧들미 가문의 욕이 니르고 조종신녕이 불평흐실디라 이제 폐
호고져 호노라 제인이 듯기를 뒹고 홀연 신식이 변흐더니 문정공이 이에
관을 바르게 호고 줌을 고쳐 쏘자 므릅홀 뵙고 정식 알 조고로 폐당지스는
강양의 죄 아닌 작 아닛느니 흥문이 년소호승으로 삼가디 못홀 허물이 이
시나 대단티 아니르고 풍신지해 일시 걸식라 이런 대단호 말슴을 흐샤 부

7) 양상서는 이미 이몽현의 아들 세문과의 혼담 때 공주의 며느리로 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거절한 바 있다.

즈 턴눈을 손상하시니잇고 하람공이 역시 정식 왈 현대 그릇 아랏도다
헛갓 얼굴과 문장이 유여흐미 아룁곳가 눈상 대관으로 부지 크고 즈식이 부
모의 말을 스디라도 거스리미 업고 제 므음의 맛당티 아니흐나 부되 맛당이
너기거든 조츠라 흐미 회암선싱 지극흐 말슴이라 우형이 불민흐나 이를 밧
드러 흥고져 흐며 즈식을 디흐야 경계흐미 숙야 게으르디 아니믄 현대 등이
소공디어늘 홍문은 인면슈심이라 헛갓 얼굴이 고으물 밧고 슈식 스이 붓긔
치 놀리물 즈부흐야 부되 명혼흐 너즈는 남으라 브리고 존당과 어의게 니
르미 업시 외방의 아나가 안해를 엇고 오니 그 죄 엇디 등한흐리오 현대는
알기를 대단이 아니나 너 므음은 장춧 통혼흠과 붓그리오미 꺾전흐야 늦출
드러 사름 보물 붓그리느니 너히 등은 늙의 일이라 헛히 드러 말이 여츠하
도다 문명공이 꾸러 듯기를 밧고 늦비출 고태 다시 간왈 홍문의 죄 그러흐
믄 쇼테 등이 엇디 모르리잇고 형당이 다만 등벌을 주시믄 울키니와 폐흐
믄 만만 가티 아닐 분 아니라 대인이 엇디 허락하시며 아래로 여러 아히
다 인조흐테흐니 엇디 츠아 형의 자리를 옹거코져 흐리잇고 형당이 일시
분기를 격발흐샤 말슴이 여츠흐시나 이는 되디 못홀 일이니 브절업시 슈설
을 허비티 마르시고 약간 칙흐샤 후일을 경계흐소서 부매 왈 대인이 임의
쳐치흐라 흐여 세시고 우형이 비록 성결이나 되디 못홀 말을 흐리오 쏘 나
의 여러 아히는 다 불초흐니 불초으를 폐흐 후 문등의 고하고 성문을 세우
려 흐노라 공이 문득 불연 변식 소왈 쇼테 비록 디식이 천박흐나 형당기
그릇 슸디 아니홀 거시어늘 유리히 너기시는 괴식이 업셔 이런 난언을 흐
시니 쇼테 심담이 서늘흐물 이기디 못홀쇼이다 쇼테 상이 아니니 형의 위
를 앗디 아니홀 거시오 성문은 더욱 엇던 아히라 대중을 밧들리오 츠언은
쇼테부즈로 흐여금 천디의 췌디 못홀 누명을 어더주려 하시느니잇고 설과
의 스매를 췌티고 도라가니 아래로 기국공 등이 일시의 글오디 홍문은 인등
기린이라 일가의 브라는 배어늘 일도의 죄인을 밧들고져 하시느뇨 쇼테 등
이 안안이 듯지 못홀쇼이다 인흐야 츠츠 니러 도라가니 부매 심기를 이기디
못흐야 좌우로 공즈를 잡아다가 티고져 흐더니(권2)

흥미로운 점은 폐장 논란의 과열 과정에서 불고이취는 문히고 이흥문은 폐장되어서는 안 되는 집안의 기린아로 칭송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몽현의 격한 폐장논의가 아들의 비례에 대한 눈총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계산된 행위로 보이기까지 한다. 실제 자신의 아들 성문을 종손으로 세울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차차 이몽창이 부모에게 이 상황을 고해, 폐장은 거두고 태장 삼십 대를 내리는 것으로 대신하게 된다.

이후 양상서가 사위를 찾아 이부에 이르러 이흥문의 신분을 알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허락하자, 이부에서는 먼저 혼약했던 노부에 퇴혼을 청한다. 그러나 대로하여 봉채를 돌려보내고자 하는 노부사와 달리, 노몽화는 이미 이흥문에 반한 상태이기에 이흥문이 아니면 수절하겠다고 고집하여 결국 혼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고이취한 양소저가 정실이 되고 먼저 정혼했던 노몽화가 재실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람공이 듯기를 못고 흘일업서 다시 통하야 골오되 당초 공의 구혼호물 조차 돈의 불초호물 모르고 도히 듀진의 호연을 밋고져 호거늘 즈식이 무상하야 이에 니르니 므슴 늦치 이시리오 **물이 업침곳야 양시녀지 돈의 혼스를 묻져 미자시니 서로 위치를 밧고디 못호리라 둘재로 취호리니 길일을 톱호소서**(권2)

정혼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먼저 혼인하게 되면서 혼인의 순서가 뒤바뀌고, 먼저 정혼했던 여성이 재실로 들어가는 상황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황제의 사혼이나 늑혼 혹은 여성 인물의 수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분분한 데 비해⁸⁾,

8) <이씨세대록>의 이성문과 여이화의 혼인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 두 사

노봉화를 재실로 들이는 과정은 ‘혼사를 먼저 맺었다’는 전제 하에 논란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사혼마저도 용납하기 어려운 것으로 논란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불고이취에 의한 뒤바뀜은 별 논란이 없는 것이다. 실제 이 단계에 오면 앞서 폐장논의까지 불러왔던 불고이취가 “홍이 비록 죽었으나 먼저 친연하여시니 양시 상원이 될디라”라고 하여 용인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국 이홍문의 불고이취는 그 자체로 비례의 혼인이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정혼자에 대한 퇴혼과 순서 바뀐 혼인이라는 또 다른 비례의 혼인을 연쇄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2) 내종형제 간 이중 혼인

이몽창의 아들 이백문은 화시랑의 딸 화채옥과 혼인하는데, 혼례 당일 부터 자신을 잡아먹을 상이라 하여 냉대하고 그 시녀인 노화도와 관계를 가진다. 노화도는 이전에 이백문의 사촌 형인 이홍문의 재실로 들어갔다가 출거된 노봉화로, 이홍문에 대한 원한을 갚기 위해 니고 혜선의 도움으로 십삼 세의 소녀로 변한 후 화소저의 시녀로 있다가 이부에 따라 들어온 상태이다.⁹⁾ 이백문이 노화도에 침닉하게 되자, 노화도는 혜선의 계

람은 어려서 정혼한 사이인데, 혼기를 앞두고 여이화가 아버지의 원찬길에 동행했다가 행방불명되자, 여소저가 살아 돌아오면 상원자리를 내어 준다는 전제 하에 임소저와의 혼인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 실종되었던 여이화가 살아 돌아오게 되자 재실로 들어오는 문제를 두고 분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씨세대록>의 전편인 <쌍천기봉>에서도 이몽현은 장옥경과 정혼하여 혼례일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태에서 효성공주와 혼인하라는 사혼은지를 받게 된다. 이부에서 장소저와의 혼인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자 태후는 장소저에게 파혼을 고하도록 하고 납폐 문명까지 찾아오도록 한다. 이후 이부에서 다시 장소저를 들이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재실로 들어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진다.

9) 이홍문의 불고이취 때문에 재실로 들어갔던 노봉화는 수많은 모해 끝에 결국 이부에서 출거되는데, 노부에 드나들던 니고 혜선은 이홍문과의 연은 끊어졌으니 미련을 버

교대로 자신이 본래 사족 규수로 어릴 때 부모를 잃었으니 찾아달라고 하고, 이미 계교를 들은 아버지 노부사는 방을 보고 찾아와 잃어버린 둘째 딸이라 속인 후 집으로 데려간다.

이후 노부사의 정식 구혼이 퇴짜를 맞자, 이백문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당당히 노화도를 맞이하려 하지만, 이몽창은 노화도의 ‘창녀도곤 심흔’ 음란함을 들어 강경히 반대한다. 노화도가 노몽화였는가, 이흥문의 재실이었다가 다시 이백문의 재실이 되는가 하는 패륜의 문제 이전에, 화채옥이라는 정실의 침소에서 낮이나 밤이나 음란한 정사를 벌이던 시녀를 다시 정식 부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란과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한번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 출거한 집안의 여자를 다시 들이기 힘들다는 입장도 더해져 있다.

왕이 수말을 니르니 흥문이 눈썹을 뺨기여 불열 왈 “네 쓸노 소달을 주어 집을 망흐일 번흐고 쏘 음난지인을 숙부 안전의 보내고져 하니 그 인식 크게 한심흔디라 숙부는 므참내 허티 마르쇼셔” 왕이 고개 조아 왈 “현달의 말이 정허 올흔디라 엇디 알고 그런 음난지인으로 친스를 일우리오” 흐 더라(권 14)

실제 구혼하러 왔다가 퇴짜를 맞고 돌아가는 노부사와 맞닥뜨린 이흥문이 숙부인 이몽창에게 절대 허락하지 말라고 한 데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노부의 여자라는 것으로 이렇듯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이흥문이지만, 노화도가 자신의 재실이었던 노몽화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기에, 그의 태도는 한편으로 쓴웃음을 자아낸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리라 하면서 7년 후 이백문과의 연을 예언하며 종암산으로 노몽화를 데려간다. 7년 후 이백문과의 혼인을 이루기 위해 먼저 혜선의 환약으로 외모를 13세의 여자로 바꾸고 여행까지 새로 짠 후, 혜선의 조카라 하여 화부 화소저의 시녀로 팔려들어간다.

고 당사자인 이백문은 모든 것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왕이 매마다 고찰하여 열흘 치고 쏘흔 도권을 무려 가라오되 “네 처엄의 늙의 규원 줄 모르고 희롱하여시나 그 근본을 드른 후 즉시 공슈하여 사례하고 네로 도라보낼 거서어늘 흥가지로 음난하고 췌하여 도라보내니 그도 인척으로 못하더나” 씩이 정신을 출혀 디오라 “더 스족인 줄 안 후는 각별 친혼 배 업고 그 부모 츠자주기는 비례 아니로소이다” 왕이 노왈 “너는 비례 아니라 하나 내 췌은 비례니 쏘 마즈라” 쏘 고찰하여 열흘 치니 성혈이 흐르더라(권 14)

이몽창의 명으로 육십 여 장의 매를 맞으면서도 이백문은 아버지의 엄한 질책에 한 마디도 지지 않고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특히 시녀로 정을 나누던 여자가 사족 여자임을 알았는데도 관계를 지속하는 문제에 대해 ‘비례(非禮)이다’라는 아버지에게 ‘비례(非禮)가 아니다’라고 당당히 받아친다. 이런 상황에서 이백문과의 혼인이 진전되지 않자 다시 해선이 나서 도술로 황제의 꿈에 나타나 사혼하도록 종용한다.

황제의 명이 내리자 노부사가 택일단자를 보내지만, 이몽창은 통분해 하면서 이백문에게 임의로 데리고 살되 예로 들일 수는 없다¹⁰⁾고 경고하고, 길일이 다다랐는데도 혼례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자 아버지에게 당당히 맞서던 이백문도 초조해져 조부인 이승상에게 도움을

10) 왕이 홀일업서 스빅하고 물너 집의 도라오니 노가의셔 불셔 택일단즈를 보흔는지라 왕이 더욱 통히하여 말을 아니하고 상셔와 태부를 불너 곶오되 “이제 빅문이 내을 망하고 그치리니 여등이 저를 본 테 말고 스스로 노시를 취하여 드리고 살게 하라” 이 인이 송연하여 물너나다 이 소식이 한님의 고되 니르니 한님이 대희하여 빅병이 구름이 솟듯 안개 석듯하여 심여 일 후 향차하여 니러나 부중의 드러가 부모기 청죄하니 왕이 대로 왈 “욕자 어는 늦츠로 감히 다시 날을 보느뇨 내 임의로 노시를 취하여 드리고 살지니 음비흔 자취로 내 집의 넘치 말나”(권15)

청하고, 결국 부친의 업명을 어기지 못한 이몽창은 허락하고 만다.

친영한 지 삼 일 후 노화도가 이부에 들어와 현구고 예를 마치자, 노화도를 본 인친들은 노화도가 이전의 노몽화와 너무 비슷하다며 분분한 의견을 낸다.

일즉 파연하고 일개 정당의 모닷더니 남공이 탄왈 “신부 노시 석일 노시와 같다 혼들 그티도록 ㄱㅌ노” 기국공이 쏘 곶오티 “금일 신뷔 괴골이 심히 셴약하니 조금도 흥문의 처로 다르지 아니하니 엇지 고이치 아니하리오” 승상이 날호여 곶오티 “동괴지간의 달모미 네식라 여등은 고이혼 말을 말나” 낭공이 수명하미 연왕이 심하의 크게 의려하야 혹자 전일 노신가 하디 금일 노시 하 미약하니 전일 노시 나홀 해면 저러치 아닐지라 심중의 의심을 품고 다시 일언을 아니하더라(권15)

이부 주변 사람들은 외양을 보고 너무 닮았다고 하거나 심지어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데 비해, 이부에서는 그런 일을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일축하고 있다. 이흥문과 이백문 두 내중형제가 한 여자와 혼인한다는 패륜적 상황이 의심되고 거론되는 그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한편 그토록 바라던 혼인이 이루어진 후 두 사람은 더욱 거리낄 것 없이 마음껏 관계를 가진다. 물론 이미 시녀로 문란한 관계를 가질 때부터 패륜이지만, 혼례를 치르고 정식 부인이 된 후에는 비록 속이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노시 일즉 흥문으로 혹 동쳐홀 적 이시나 엇지 이런 은익을 보와시리오”와 같은 서술 속에서 전 날 남편인 이흥문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후 노화도는, 자신을 내친 이흥문에게 복수하기 위해 혜선과 함께 화채옥과 이흥문의 간통사건을 꾸미는 등 여러 가지 악행을 벌이다가, 시아

버지 이몽창까지 죽이려는 과정에서 노몽화였다는 것이 밝혀져 온 집안을 충격에 빠뜨린 후 도망간다.

결국 사촌 형제가 한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인 이 비례(非禮)의 혼인은, 삼강오륜을 흐린 사건으로 이부를 벗어나 황제의 손아래 논죄된다.

(3) 속임수에 의한 혼인

이경문은, 이몽창의 둘째부인인 소부인이 소실에게 모해를 입어 남창에 쫓겨 갔을 때에 낳은 아들로, 강도에 의해 아들이 없는 유영걸의 집에 팔아 넘겨진 후 유현명으로 살게 된다. 위공의 딸 위홍소 또한 어릴 때 부모와 헤어져 남창 사람 원용의 양녀로 지내다가, 유현명(이경문)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첫날 밤 자신이 위씨 재상이 딸이었을 거라고 하며 친부모를 만나 친영대례 후에 동침하자고 한다. 이후 공무집행 문제로 위공에 의해 유영걸이 결박당하자, 유현명(이경문)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위홍소와 이별한 후 유영걸을 찾아가는데, 공사에 준엄한 위공 때문에 유영걸은 물론 유현명(이경문)까지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성문 등 이부 사람들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풀려나게 되고 유현명(이경문)은 이몽창의 아들이라는 본 위치를 찾게 된다. 위홍소 또한 유현명(이경문)과 이별한 후 다시 늑흔의 위협을 겪는 등 고초를 겪다가 본가인 위부로 돌아오게 된다.

이들이 제 위치를 찾은 후 두 집안에서 혼사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데, 이 때 장인인 위공과 사위인 이경문 간의 전날 관계가 장애물이 된다.

쇼계 미쇼 디왈 연죽 쇼녀는 절노 절의호엿느이다 승상이 아연 왈 녀의 말이 므슴 뜻이노 쇼계 왈 쇼네 니식의 인물을 여간 아옴느니 본부모를 엿다 호고 뉴공을 이줄 위인이 아니오 고집이 태과호니 호 번 말을 니매 저근

일이라도 고티기를 아니하니 소녀 일 인으로 아야를 아롭다와 흐리오 아야
는 두고 보쇼셔 저 니심이 소녀를 용납디 아니흐리이다 승상이 경왕 네 소
 권이 유리흐거니와 연왕이 었디 제 뜻을 바드리오 쇼제 웃고 왈 니식의 뜻이
 금석갓트니 만일 부전의 녀징흐디 뉴공의게 십륙 년을 길니여 아비로 디접
 흐다가 이제 춤아 버벼려 전후 두 맛음을 먹으리오 흐 즉 비록 군부의 위엄
 이나 었디 아스리잇고(권10)

위소저가 전날 관계 때문에 혼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 확인하자, 위공
 은 일단 위소저를 죽은 것으로 해둔다. 실제 이경문은 전날 유영결과 자
 신을 사지에 몰아넣었던 위공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표하며, 남창에서 혼
 인했던 위소저가 위공의 딸이면 ‘절의’하겠다고 한다. 이에 이부와 위부
 에서 모의하여 위홍소를 위공의 친척인 위부마의 딸이라 속여 혼인을 성사
 시킨다. 혼례 또한 위부마의 위궁에서 이루어지는데, 위궁에서 이경문을
 기다리는 위소저 또한 자연스럽게 이 속임수 혼인의 공모자가 된다.

이처럼 위소저가 죽었다는 것과 신부는 위부마의 딸이라는 두 가지 속
 임수 속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는데, 혼인한 날 이경문은 위소저를 알아보
 고 자신이 속았음을 알게 된다. 그러자 반가우면서도, 자신 또한 위소저를
 못 알아보는 척하며 성적인 희롱으로¹¹⁾ 앙갚음을 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가 위공의 딸인 것은 알지 못하던 중 외가에 갔다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태도가 돌변한다.

11) 한님이 녀쇼 왈 서방 마췌던 새악시 새로이 교티 므스일고 쇼제 츀연을 듯고 크게
 붓그려 옥면이 취홍하니 홍광이 축하의 췌이니 한님의 익런흐미 더욱 극흐야 믄득
웃고 왈 전가부는 이괴던가 무릅히 누으며 곶오던 전가부는 가브얏던가 질드리기
닉으리라 시협흐야 혹심도 질드리미 엇더흐노 쇼제 한님의 돈후하나 성정이 홀연
 변흐야 더러운 말노 핏박흐물 붓그리고 흐으야 안식을 변티 아니코 췌흔 답디 아니하
 니 한님이 췌흔 스매로 늦출 덩고 자는디라(권10)

한님이 분노를 이기디 못흐야 문니를 멩흐야 거당을 휘조차 다투고 조초 글을 보너여 결의하고 혼서를 츠자니 츠시 위공이 녀으리 도라오물 고이히 너겨 연고를 못고 대로하더니 홀연 한님의 궁리 니르러거늘 썩혀 보니 글와 시디 다투 불면흐야 그디를 취흐여더니 이제야 드러니 불공대턴지슈 위공부 녀이라 하니 다투 엇디 유대인 큰 은혜를 잇고 그디를 용납흐리오 썰니 혼서 봉취를 도라보너고 심규의 조진하라 흐여시니(권10)

위소저를 혼서와 함께 돌려보내면서 ‘자진하라’는 편지까지 보내는데, 이부에서 이를 알고 태형을 가한 후 위공에게 용서를 받으면 돌아오라고 보내지만, 위공 또한 ‘내치라’고 강경하게 나가면서 용서하지 않는다. 이처럼 부모와 장인에게 모두 몰린 상황에서 이경문은 위소저에게 폭력을 가한다. 차려온 음식을 발로 차고 위소저를 치는 등 물리적인 폭행¹²⁾은 물론 ‘요괴로운 여자’라느니 ‘다른 서방이 있다’느니 하는 폭언¹³⁾을 일삼자, 위공은 딸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 잘못을 시인한다. 이런 폭행과 폭언

12) 쇼계 이날 새도록 새오고 경신이 어즐흐야 니러 나오니 한님이 벗야호로 니러안자 가라오디 그디 엇던 고들 가느뇨 츠시 니르미 가토다 쇼계 홀 말이 업서 도로 안즈니 한님이 썩 굴오디 날을 규방의 너허두고 굴며 죽이라 흐느냐 쇼계 즉시 남섬을 불너 미음을 나오니 한님이 대로 왈 천흐 녀지 아비 썩을 바다 날을 업슈이 너기느뇨 즉시 흐 말노 츠니 방 안히 허여져 쇼저의 치매 다 저즈디 쇼계 흐 말도 아니호고 친히 니러 거두워 아스니 한님이 썩흐 누어 말을 아니호더라(권10) / 시녀비 엇디 다투 게 갓가이 오리오 이 필연 스정이 이시미라 썰니 물너가고 눈의 비디 말나 쇼계 흐 말도 아니코 니러나거늘 심이 대로흐야 문득 닐더니 쇼저를 박차 것구리 티고 사창을 열고 시노를 불너 크게 호령흐야 좌우 시비를 다 잡아 누리오니 (권10)

13) 밤이 깊흐매 한님이 차는 듯흐매 쇼계 벗야호로 길게 한숨 디고 명등을 도도니 한님이 문득 소매를 찢티고 니러안자 꾸지져 굴오디 요괴로운 베지 야심흐디 자디 아니코 한숨은 므스일이노(권10)/ 심이 다시 벼개의 지허 노목으로 쇼저를 낭구히 보다가 이윽고 굴오디 다투 몸이 곤뇌흐야 견디지 못흐니 그디 나아와 드리를 두드러라 쇼계 목연이 답디 아니호니 심이 대로흐야 니러안자 꾸지어 굴오디 요베 엇디 감히 아비 세를 썩 이러듯 방즈히 구느뇨 네 아비 너를 조만의 다른 디 서방마저 보너려 호더니 요수가 날을 이러듯 능만흐느뇨(권10)

이 실제 위공을 향해 있는 것이었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긴 했으나¹⁴⁾, 위소저에게 이는 심각한 내상으로 남는다. 그 때문에 이 경문과 위공의 대치가 일단락된 후에도, 지난 일을 덮고 화락하고자 하는 이경문과 달리 끝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¹⁵⁾

다른 신분을 거쳐가는 상황에서 빚어진 원한 관계 때문에 속임수 혼인이 이루어지지만, 속임수가 탄로나는 과정에서 ‘혼인의 유지’가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는 비정상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 이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비례(非禮)의 혼인

(1) 재종간의 혼인

이몽현의 장녀 이미주와 철연수의 장자 철수는 조부모가 남매지간인 재종간이다. 단, 철수의 조모인 경부인은 입양된 양녀로, 피가 섞인 재종간은 아니다. 하지만 두 집안 간의 돈독한 관계로, 이 둘은 어려서부터 내외하지 않고 어울려 자란다. 그러던 중 이미주를 마음에 들어하던 철수가 이미주와 혼인하고자 하면서 논란이 일게 된다.

14) 쇼계 여러 날 침슈를 폐하였다가 이날 견디지 못하여 곧히 칩상머리의 업터여 잠을 드러시니 한님이 그옥이 은의 뉴동하는 가운데 이 썩 첫 7을이라 슈호의 바람이 저기 츠니 약질이 상홀가 저혀 지삼 두로 슬퍼 인적이 업스물 안 후 드터여 나아가 봉침을 나호여 쇼저를 편이 누인 후 녹운금을 드터여 덤홀 시 형혀 썰가 호야 조취를 조용히 호야 덤기를 맞고 도로 주그 주리에 나아가 늙다가 그 옥즙이 그저 굿터여시니 혹 박힐가 의려호야 다시 나아가 썩혀 겨터 노코 바야호로 자리의 와 누위 다시 잠들거늘 위공 부부 주시 보고 크게 두긱기고 녀으를 넘너호미 이 굿트물 대열호야 다시 넘너터 아니호터니(권10)

15) 스스로 일성이 순터 못호물 슬허호고 주그 반싱을 길7의 뉴리호야 부모기 불효를 기터다가 겨유 모드며 주가의 인연호 사롭이 부모를 즐육호물 불평호고 설위 당탄단 우호야 즘을 자디 못호니(권 11)

공직 웃고 곁오디 “조부와 조피 이제는 친칭 동기로 다르디 아니시니 우리등의 정인들 었디 타류와 굿트리오 현미는 모르미 골육이 아니라 호야 서 의히 너기디 마르소려” **쇼계 정금 념용 왈 “즈고로 남네 유별흐니 쇼미 서 의히 너기미 아니라 피츠 네를 그죽이 덕희여 친친지의를 일터 말미 올코 서로 무상이 모다 희언과 부담을 흐른 가티 아니니이다**” 털공직 웃고 흥문을 도라보아 곁오디 “헌데 통덜흐른 우형을 혈심소직로 스랑흐디 념저의 뜻은 만히 불쾌흐시니 골육이 논호이디 아니물 씨듯노라” 흥문이 샤왈 “저제형을 외디흐시미 아니라 텃폼이 떼둥흐시므로 언단이 여츠하시나 구트야 형을 외디흐시미 아니라” 하니 공직 함쇼흐고 쇼져를 도라보니 쉼파를 낫초고 잉순을 다모라 슈언이 좌호여시니 단엄 엄숙흐미 일좌의 빈이고 몹은 기보는 옥이 조흔듯 팔츠 아황과 년협 보조개 천고절식이라 더욱 효묘 년년흐나 그 엄정흐물 두려 니러 도라와(권1)

남다른 정을 거론하며 이미주에게 마음을 전하는 철수와 달리 이미주는 남녀가 유별함을 강조하며 친척의 의를 잃지 말자고 하면서 여지를 주지 않으려 한다. 여기에는 이미주가 원래부터 철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재종간이라는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면해 왔던 정황도 포개어 있다.

이후 철수가 조모인 경부인에게 혼인의 의사를 밝히며 뜻을 이뤄 줄 것을 청하자, 처음에는 친척의 예를 들어 망령된 말이라고 하던 경부인도 “중표혼이 시풍이 되었고 더구나 재종간 혼인은 문제없다”는 철수의 말에 동조하면서 이부에 정식으로 청혼하게 된다. 중표혼(中表婚)은 내외종 사이의 혼인을 의미하므로, 재종 사이인 두 사람의 경우에는 정확히 적용되는 혼인법이 아니지만, 두 사람의 혼인 여부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경부인이 부마의 성정의 밍널흐물 저허흐나 진실로 등표혼인이 시풍이 되엇고 승상과 조개 골육동기 아니오 미쥬와 창당이 직종형미니 혼인을 일우미 무해라 하야(권1)

하람공이 심하의 노기 급흐매 홀연 미미히 웃고 썩을 어르믄저 슈정이좌
 호고 녀슬레고 왈 “조고로 남네 유별호고 강상이 막대흐미 텃하의 흐나히라
 부뷔 비록 친흐미 극진흐나 그 가운데 대륜이 명명하야 서로 타문 녀조와
 남조로 일흠과 얼굴을 아디 못흐다가 부뫼 명하야 됴뫼로써 구혼하고 초례
 납빙 후 일실의 동거흐미 이시니 소달이 평싱 하나홀 아라 김히 경계호고
 지여 상여 문군의 음난 브정흐물 가연흐나 이 썩호 타문 사름이니 현마 엇디
 흐리잇가 급시 풍이 비록 등표혼인흐는 니 이시나 이 속 소리 모르는 쥬
 거죽 은테진 옥경디를 빙자하야 패려지스를 힘흐니 원너 이 일이 공직 지어
 닉신 일이라도 소달의 뜻의 합디 아니면 헝티 아니 흐리니”(권1)

중표혼이 시풍이 되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철부의 입장과 중표혼을 패
 려지사라 하는 이부의 입장이 뚜렷이 대립되고 있다. 이 때 중표혼은 근
 친혼을 대신하는 말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철부에서 근친혼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이부에서는 혼인이란 ‘서로 타문의 여
 자와 남자로 이름과 얼굴을 알지 못하다가 부모가 명하여 중매로 구혼
 하고 초례 납빙 후에 일실에 동거하는 것’이므로 친척 간 혼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경직된 입장을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정적 입장이
 이부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두 사람의 혼인에 대한 생각은 이미주
 부녀와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 간에 다른 양상을 보인다.

뉴부인이 브야호로 털부인을 경계 왈 “너 너를 나티 아나시나 오 세브터
 후양하야 정이 없미여시니 엇디 나흔 바의 디리오 너의 손으를 나의 외손으
 로 아다가 고태 손셔라 흐미 만만 불스흐나 창당의 뜻이 그러흐 후는 미쥬

를 그릇 밍그라시니 녀오는 덩을 경계하고 그 썩을 기다리라” 부인이 황연 이 씨드라 비샤 슈명하니 승상이 비야호로 입을 여러 곶오티 금일 몽오의 말이 소리 진실노 그러흔 고로 쇼데 것덜너 저저 쫓을 밧줍디 못하니 불췌흐 물 즈괴흐나 미췌 이제야 어디로 가리잇가 저저는 모로미 모명대로 그 썩을 기다리소서 / 흥문이 꺾마니 위로 왈 우리 저제 이제야 어디를 가리오 형은 무스히 도라가 형실을 옥긱티 닷글 만하고 밍지 타문의 갈가 녀름을 말라/ 승상이 날오티 창당이 방즈흐미 통히흐나 네 몸은 조곰도 해로오미 업스니 심녀를 쓰디 말고 네 몸은 털시 사름인 줄 알디어다(권1)

철수가 미주소저와 혼인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만으로도 이제 미주소저는 타문에 시집갈 수 없는, 철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철수와 의 혼인이 이루어질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평소 성격이 강하고 준열한 이몽현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못해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 하여 미주소저를 후원에 가둔 후, 심규에 늑히는 한이 있어도 철수에게는 보내지 않을 것이라 하고, 미주소저 또한 식음을 폐하고 죽고자 한다. 결국 경부인에 대한 우애와 자신에 대한 효를 거론하는 조부 이승상의 뜻에 따라 두 사람 간의 혼인은 성사된다.

이 혼인은 이후에도 빠그덕거리며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미주소저가 죽기를 각오하고 철가에 안 간다고 하면서 식음을 폐하고 누어 지내다 병들어 기거를 못하게 되자, 두 집안은 ‘길일에 성례는 하고 현구고는 병이 나온 후에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다. 그러나 미주소저가 병을 핑계로 동침을 허락하지 않는 동시에 철수를 무시하는 날이 계속되자, 철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후, 철부에 돌아가서는 미주소저가 특별히 아픈 데 없는데도 현구고를 지연한다고 한다. 이에 본래 부녀의 고집을 용납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엄히 다스

리는 철시랑은, 이부에 가 병세가 위중해도 이미 철부의 사람이 되었으니 자기 집에 데려가 조리하겠다고 한다.

시가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 둘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다. 철수는 미주소저를 찾아온 동생들 앞에서 누이인 미주소저를 비꼬거나 화를 돋우기도 하고, 둘만 있을 때는 미주소저에게 화를 내며 후회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기도 한다.¹⁶⁾ 이런 철수의 태도는, ‘친척 오빠로 대하던 사람을 남편으로 대하는 것은 비례’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혼인한 지 7~8개월이 되도록 철수와 말을 섞지 않는 미주소저의 태도에 대한 응수이다. 이런 살벌한 갈등 국면이 지속되던 중 철수의 과거 급제를 축하하는 대연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날 미주소저가 그 등용함을 치사하자 철수가 놀라고 기뻐하지만, 미주소저는 존당구고가 기뻐하는 날이니 인사를 차린 것뿐이라고 하여¹⁷⁾ 끝까지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재종간 혼인에 대한 분분한 논의 속에서 근친간 혼인이 성사되기는 했

16) 네 누의 괴망흐미 너를 올타 흥가 너기느냐 지금그디 그 말흐를 나는 듯디 못하니 잇다감 분쳐 격발흐디 악모의 듯출 보와 머뜨려 두엇노라(권2)/니시 문둥이 본디 불고이취흐는도다 산옹이 그러흐가 양시는 정보로 인흐야 언마나 참변을 만나리오. 싱이 대소흐고 소저의 손을 잡아 왈 문정공이 당초는 형시 가소롭더니, 이제는 탐목헌 군직 되어시며 그 아들이 여러듯 괴특흐니 이 다 소부인의 덕이니라(권2)/“그디 성네헌 칠팔 사의 싱의 말을 답디 아니흐고 이러듯 불통흐니 당춧 필경을 엇디코져 흐느뇨” 쇼계 쏘흔 답디 아니흐더라. 싱이 더욱 의이 너겨 풀흘 잡고 흥슈를 거터 그럭 쳐 왈 “싱을 더러이 너겨 디키를 괴로이 너기고 말디답흐물 측히 너기나 싱혈은 놀로 흐야 업섯느뇨. 이 곳의 다드라 엇디 결부를 효측디 못흐느뇨.” 쇼계 쏘흔 동티 아니흐대 싱이 홀일업서 무릅히 누으며 왈 “아직 신정이 미흠흐니 그디를 죽가 아니 흐거니와 당춧 급데흐야 혼타 가인을 엇고 그디를 미러 너칠 적 뒤웃츠리라”(권2)

17) 싱이 놀나고 깃거 이에 혼연 디왈 “막춤 농계를 붉으니 부모고 영화를 뵈오미 깃브나 쏘 경시 잇도다 부인이 엇디 혹싱드려 말을 흐느뇨” 쇼계 냥구의 디왈 “첩이 균을 으시로부터 거거로 아다가 균이 무상흐야 반계 꼭경으로 취흐니 므음의 혼이 미치고 원이 빠혀 말흐 의신 없더니 금일은 존당구괴 큰 경스를 당흐야 과도히 깃거호실신 인스를 출혀 균을 향흐여 말을 하나 깃거흐미 아니로다”(권2)

지만, 그에 연계된 부부 간의 불협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2) 시녀로 대한 남성과의 혼인

이몽현의 딸 필주소저는 어릴 때 실종되어, 왕공의 종인 남창사람 안성에게서 키워지다가, 왕공의 딸 왕소저의 시녀로 들어가게 된다. 왕소저의 동생인 왕생은 필주를 보고 반하여 마음대로 동침하려 하다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그 와중에 필주의 오빠 형문이 방문하여 이부의 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 이로 인해 왕생과 필주소저 사이의 혼사 문제가 거론되는데, 필주소저와의 혼인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왕생과 달리, 오빠 형문은 속량하고 다른 데 시집보내겠다고 하고 아버지 이몽현 또한 심규에 늑히겠다고 강분한다.

이처럼 시비로 알고 겁박하고 상해를 입힌 여성과 혼인하는 문제는, 먼저 시녀인 줄 알았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과 시녀였다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간의 분분한 논의로 전면화된다.

왕성이 이 씨 좌의셔 쇼저의 거동을 보고 놀나고 것거 어린 듯 흐더니 츠 언을 두고 우어 왈 나는 일즉 녕민 장각의 드러가 겁칙흐미 업기는 니르도 말고 너 집 종의 쫄노 풍뉴남지 그 직식을 과흐야 친압고져 흐미 언에 불순 흐고 물니치물 식호가치 흐니 통회흐물 춤지 못흐야 약간 구타흐미 이시나 엇지 녕민 줄 알니오 형문이 노왈 네 가지록 완흔 말을 흐노 쇼 설스 너 누원 줄 아지 못흐나 네 어린 아히 풍정이 과도흐야 이러톳 흐니 야애 아락실던 디 엇디 노치 아니시리오 왕성이 쇼왈 녕미라 흐고 곡뒤의 씨 브치더면 쇼 제 알거술 모른 후야 일흠이 너 종이어든 엇지 치지 못흐며 부마 상공이 아라신들 모르고 저즌 일을 노흐시랴 니시랑이 노흐야 답지 아니흐고(권24)

왕성이 공경흐야 듯고 놀호여 디왈 쇼심이 비록 불혹무식흐나 심이 심오 의 오론 눈상을 삼가고 남네유별흐물 아느니 녕민 도장 가온디 겨시거늘

그리 흐지 아났느이다 어식 변식 왈 굳이 혼갓 말 죠호물 즈랑흐야 이갓치
 덕답흐나 아미 만일 도장 가온덕 이실진덕 무슴 청승으로 그덕의게 덕를
 마즈리오 왕싱이 미쇼 왈 봉접이 길가의 쫓을 지니보지 아니흐니 상공이 남
 지시니 쫓은 다 혼가지실지라 쇼싱이 본덕 풍뉴협긱이어늘 녕미 혼 송이 년
 화로 쇼싱의 눈의 뵈엇거든 엇지 가마니 두고져 쫓이 나리오 만일 녕민 줄
 알고 범흐엿실진덕 쇼싱의 죄 슈스난속이려니와 너 집 종의 쫓노 저저의 저
 근 비지라 즘간 침석의 정을 머르흐미 허롭지 아니타 흐야 불리드려오미 남
 즈의 풍정을 물니치물 식호사가치 흐는지라(권24)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내 집 종인데 친압하려 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왕생과 종이라도 너의 풍정이 지나친 것이라는 이형문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으며,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자신은 오류를 알기에 도장에 있었으면 범할 일이 없었다는 왕생과 도장에 있었으면 왜 매를 맞았겠냐는 이형문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후 왕생을 징계하는 의미에서 구혼에 퇴짜를 놓자, 이번에는 동침 직 전까지 간 남녀관계에서의 혼인은 당연할 것이라는 입장과 그런 혼인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간의 대립이 분분하게 나타나면서 또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어식 왈 쇼미 그덕를 브리며 아닐 거시 이시리오 쇼미는 쇼미오 그덕는
 그덕니 셔라 총단홀 일이 업느이다 왕싱 왈 총단홀 일이 본덕 업드디 니시
 쇼싱으로 더브러 냥야를 동속하고 썩는 고로 부부의 명회 잇는지라 즈연
 이 말이 그리 되니 니시 임의 실절흐니 쇼싱이 다시 총단홀리잇가 근심 마
 르쇼셔 연이는 상공 벼살이 간관이시니 그런 녀즈는 엄히 다스리미 올토소
 이다. 어식 크게 쇼릿질너 왈 그덕 엇지 날을 이디도록 업슈이 너기내고
 아미 실절홀 제 그덕 본중이 되엿느냐 그덕 니르지 아냐도 청턴보기일지하

의 스부가 규슈 더러인 도적놈을 다슬녀 풍화를 정히 흐려 흐노라……누그 리 청명하고 착하야 즈가 누의 비즈를 남의 스부가 녀지라 하야 공경하리오 무심코 범하여시나 비상홍덤이 분명하고 일즉 존부의 와 무단이 겹치흔 일이 업스니 범뷔 못는 늘 쇼싱이 입이 이시니 스연 분명히 못하며 풍화를 정히 흘 적이면 영미 묻져 죄를 넘으미 가애니 쇼싱은 모르고 저즌 일이나 당당한 스족녀지 타문 남즈에게 빅가지로 희롱하물 남고 부모를 츠즌믹 여 러 동심의 위세를 췌노라 하야 물리치니 엇지 우읍고 붓그러온 일이 아니 리오 어식 더욱 노왈 쇼미 언제 그티를 물리치뇨 싱이 쇼이디왈 떠 썩 가친 이 죠흔 뜻으로 존부의 구친하시디 허치 아니시니 이 엇지 냉미 실절 아니 니잇가……그 전 사름드려 성흔 사름을 업는 병 잇다 소기시니 엇지 구츄치 아니리잇가 성타 하여도 쇼싱이 두 뜻 두는 녀즈는 아니 거들쇼이다. 어식 왈 싱각하니 썩의 히비경커든 그리 아니하리잇가 왕낭의 언변을 못 썩로미 아냐 말긔마다 녀즈의 실행을 드노흐니 무어시라 변칙하리잇가(권24)

이형문이 서로 남이 되었으니 관여할 것 없다고 하니, 왕생은 자신도 관여하고 싶지 않으나 부부의 명이 있는데 퇴혼한 것은 실절한 것이니 엄히 다스리라고 대응한다. 또한 한술 더 떠 당당한 사족여자가 타문 남자에게 희롱당하고도 부모 형제의 위세를 빌어 물리치니 부끄러운 일이며, 오히려 그런 두 뜻 둔 여자를 본인이 거두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이부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여자의 실행’을 언급하는 데에 반박을 하지 못한다.

싱이 쇼왈 저저는 일편된 말슴 마르쇼셔 쇼제 더 니시를 도장 속의 드려와 겹치하여시면 그르려니와 저저의 비즈로 알고 그 즈식을 훌하야 친압하미 엇지 왕공의게 죄 되미 그리 슈을 줄 아리시리잇고 연이나 녀의 무형하미 더러오니 다시 일컷지 마르쇼셔 쇼제 칙왈 네 그릇하야 두고 사죄는 아니코 이 무슴 말이며 썩 쇼피 무슴 무형하 일이 잇노쇼 싱이 디왈 쇼제 열노 더브

러 이성의 친을 일우지 아나시나 냥야를 동속하니 이러굴 제 그 손이 더의
몸의 아니 간 곳이 업스니 부뷔 아니라 학기를 못 홀 거시어늘 저저의 고귀
쇼계를 남으라 피흐니 녀즈의 명절은 놓디 못홀쇼이다……녕미쇼저의 무형
흐미 쇼싱의 희롱홀 제 다드라 조용이 근본을 니를진디 쇼싱이 놀나고 공경
햐 치는 폐도 업고 스식 다 순편홀 거시어늘 유유히 함호흐니 쇼싱이 스광
지충인들 엇지 씨다르리오 속결업시 천디햐야 비록 이성합근은 아나시나
부부지도를 다 흐엿더니 도금햐야 녀미 쇼싱을 남으라 브리기를 흥모그치
흐고 다른 군즈 옥낭을 마즈련다 하니 쇼싱이 각별 뉴련하는 비 업스디 여
자의 더로오물 개탄햐야 정히 상공니 안전의 설파코져 흐더니 디인이 엇지
쇼스를 칙흐시느니잇가(권24)

왕생은 누이인 왕소저의 훈계 앞에서, 동침은 못했지만 자신의 손이 안 간 데가 없으니 부부나 같은데, 자신을 버리고 다른 군자를 맞는다라는 것은 더러운 행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처럼 이부의 다른 사람들이 왕생의 언변과 ‘여자의 실행’이라는 금기의 행위 앞에서 왕생에게 압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당사자인 필주소저는 왕생에게 물려서지 않는다.

쇼계 더의 거동이 즈가를 드리고 스는 안히쳐로 굴물 어히업고 노흐미
극햐야 불연이 안식을 변흐고 왈 군지 스류의 몸으로 이 엇진 거죄노 전일
피척 무심 됴 실테흐미 이제 심각홀스록 혼심햐거늘 므음을 고쳐 가다듬지
아니코 업연이 너실의 드러와 남의 여자를 디햐야 언식 편만흐믄 니로도
말고 불측흔 거동이 첩을 상님천녀가치 너기니 당당이 즈결햐야 이 욕을
감심치 아니리라 칭이 혼연이 웃고 팔을 어르만져 곱오디 녀의 그디 너 손의
술을 피치 못흐엿던 거시니 혼 번 그리하나 두 번 이리하나 무어서 관겨흐리
오 만일 길스를 슈이 툃흐라 허락홀진디 너 즉시 노코 도라가리라 쇼계 더욱
디로햐야 신식이 춘 진 가뜰여 곱오디 당당흔 늑네 빅냥흔 부뷔라도 빅듀의

**친익히지 못허거늘 나는 타문 녀즈오 군즈는 방외 남지니 금일 경식이 당차
무숨 변이노 혼네 길근는 부뫼 듀당허실 일이어든 규뫼 으녀진 알 빅 아니
라 군이 츠마 첩을 니디도록 욱하고 무숨 늦츠로 턴일을 보려 허느노** 왕성이
디왈 그디 갖튼 국식을 혼 번 친하고 뚝다 무숨 혼이 이시리오 그디 만일
아니 허락홀진디 흥뫼을 이제 멀허리니 그디 비록 녀력이 과인하나 닉 슈뫼
의 버셔날가시부냐 쇼계 츠언을 뚝고 분긔 업익혀야 괴운이 혼미허거늘 싱
이 놀나 즉시 노코 도라가니 이는 계싱이 혹 알가 두리미라(권24)

왕생이, 필주소저 혼자 있는 방안에 들어가 손을 잡고 못다한 인연을
이어보자고 하면서 필주소저가 자신의 사람임을 강조하자, 필주소저는 자
신은 왕생과는 남이라고 하면서 그 무례함에 대해 반발한다. 그럼에도 왕
생은 자신을 허락하지 않으면 완력으로 친압하겠다고 하고 이에 필주소
저가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르자 그제서야 놀라 달아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부는 자존심을 만회하고 왕생의 회개를 기다리기
위해, 국상 삼 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들어 쉽게 허훈하지 않자, 왕부에
서도 역시 불쾌해하며 다른 혼처를 찾으려 하지만, 필주소저에 대한 마음
을 접지 못하는 왕생의 만류로 국상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게 된다.

삼 년을 지난 후, 아버지 이몽현은 여전히 마땅치 않아 하지만, 재종간
혼인이었던 미주소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하여 혼인을 허락하고¹⁸⁾, 혼
례 날 왕생의 당당한 풍채와 ‘이부 사위 중 가장 뛰어나다’는 주변의 칭찬
을 들으면서 마음을 돌리게 된다. 그에 비해 당사자인 필주소저에게 왕생
은 여전히 무섭고 흉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그저 초조할 따름이다.¹⁹⁾ 이런

18) 남공이 비록 맞당이 목 녀이나 이는 사세 미쥬 적과 드룬 고로 견집허미 가치 야나
혼연이 혼슈를 출히고 당부인이 쏘혼 공의 명을 위월치 못허야 범구를 드스려 길일을
영디홀 식(권25)

19) 필주소계 비록 입으로 발허미 업스나 심하의 왕싱을 드시 디키를 무셔이 너기고 흥
히 너겨 심정이 초조허디 시러곰 홀일이 업더니(권25)

입장은 혼례날까지도 이어져, 신부 침소인 흥춘당에서 단좌하고 있던 필주소저는 왕생의 신 끄는 소리에 놀라고 두려워 등에 찬 땀이 흐르는 지경에 이른다.²⁰⁾

한님이 이의 눈을 드러 바라보니……죽죽노요흔 기질이 엇지 당일 현웃
가온디 눈물이 만면호여실 적과 비기리오 시로이 눈이 황홀호고 심신이 어
려 안식의 그득흔 우음을 머금고 청사호야 곁오디 쇼상이 불민호야 왕일의
부인기 죄 어드미 만호니 도금호야 감히 촉괴호물 촉으리잇가 슈연이나 **부
인은 쇼상의 불초호물 개회치 머르시고 어진 닉조를 빗닉쇼셔 쇼계 정식
브답호고 췌 안을 노초와시니 닉담흔 기질이 더욱 절제호지라 한림이 황홀
흔 은정이 구름 못듯호야 이의 촉을 물니고 옥슈를 잇그려 상상의 나아가
니 쇼계 비록 디단이 물니치나 일 개 으녀지 장성흔 군즈를 당호리오 머춤
닉 면치 못호니 분흔이 식롭고 한림은 일념의 미친 원을 금일 쇼혈호지라
희희낙락흔 쫓이 측낭없더라**(권25)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첫날밤에도 왕생과 필주소저의 관계나 입장은 그 이전의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결국 혼례를 치렀다는 전제 하에 강압적인 동침이 이루어지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다.

시녀에서 이부의 딸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녀로 알고 겁박했던 양가집 규수와와 혼인이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혼례날까지도 일방적인 겁박의 양상으로 비정상적인 동침이 이루어지면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의 문제가 끝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 왕성이 신 끄는 소리 낭즈호며 녀전 시의 신보호는지라 쇼계 시로이 심골이 경한 호고 등의 촉 쫓이 흐르물 썩듯지 못호야 몸을 이려섯더니(권25)

3. 비례(非禮)의 혼인이 지니는 의미

1) 중심 가문에 대한 회의

비례(非禮)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씨세대록>의 중심 가문인 이부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는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주변에 의해 이루어지는 두 양상을 보인다.

먼저, 이부의 종손인 이흥문이 집을 나가 불고이취하고 이에 대해 이부에서 폐장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특히 폐장 논의 과정에서 종손 자리를 두고 장자와 차자 간의 위계가 바뀔 수 있다는 언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이부의 흔들리는 위상을 드러낸다. 또한 노화도를 재실로 들이는 것에 대해 이몽창이 반대하자, 숙부인 이소부는 이몽창이 혼인 때 행했던 비례(非禮)의 사건들을 열거하고 백문의 행동과 비교하면서, 아버지를 닮아 그런 것이라 희롱한다.²¹⁾ 이는 백문에 대한 심한 처벌을 만류하고자 한 것이지만, 이런 과정에서 문제적 혼인이 이 가문의 다반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노몽화의 신분이 드러난 상황에서 사후 처리를 의논하면서, 다 노몽화의 잘못이니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 일이 발각될 경우 백문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등²²⁾ 자신들의 안위에만 급급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왕생과 필주의 혼인은, 이부의 딸이 어릴 때 실종되어 시비가 됨으로써

21) 쇼뷔 쇼오라 “빅문은 아버를 달마는디라 칙디 말고 상을 주미 가흐도다” 왕이 쇼이 덕오라 “숙부는 대단흐 말 마르쇼셔 쇼달이 현마 더 고이흐 거시 비허리잇가” 쇼뷔 대쇼 왈 “니르디 말나 난부난직오 등하불명이니 빅문은 안흐 시녀를 머므르코나 그러 흐거니와 빅쥬의 도장 규슈를 언약고 오노 니는 더 엇더흐며 불고이취흐는 형실은 더 나오며 혼셔를 좇고 빅냥초례흐 정실을 기가흐라 흐기는 승흐 고디냐”(권14)

22) 개국공이 왈 “이 일이 다 노시 즉변이니 만일 쳐티홀딘디 쾌할지라 우리 붓그러오미 이서리잇가” 왕이 탄왈 “현데 아디 못흐나냐 간피 발각흐는 놀 빅문이 므스 사름되며 제 시비를 불너 기인이 될디라 홀노 그 아버 참피치 아니랴”(권19)

왕생에게 맘대로 겁박당하게 된다는 상황 자체가 이부의 위상을 흔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왕생의 행위에 격분하는 이부 남아들에게 어머니인 주비가 너희는 얼마나 처신을 잘 해서 남을 시비하느냐고 말리는 대목²³⁾ 또한 스스로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종간의 혼인을 관철시킨 철부의 경우, 혼인 과정이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부에 대한 노골적인 희롱이나 기롱을 보여준다. 이몽헌이 예법을 거론하며 혼인을 반대하자, 철상서는 두 부인 이상을 두고 첩까지 두면서 예법을 거론하냐며 받아치고, 그 아들 철수 또한 흥문의 불고이취 문제를 의논하고자 찾아온 성문에게, 이씨 문중이 원래 그렇다고 기롱하여²⁴⁾ 성문과 미주소저의 화를 돋운다. 이후에도 철시랑은 이부의 혼사 문제에 참견하면서, 이부가 자가의 허물은 생각지 않고 남 논박만 심하게 한다²⁵⁾면서 비꼰다. 위공 또한 사위인 이경문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이부와 결혼을 안 시켜도 된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부의 내종 형제에 대한 이중 혼인이 이루어지는 설정은, 그 자체로 이부가 작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는데, 노몽화가 출거당해 온 후, 니고 혜

23) 제싱이 덕경하야 크게 혼하야 고평되 왕가는 엇던 거시완되 더러듯 흥포흔 심술이 잇노요 아들이 당당이 친인을 설치하리라 주비 완완이 경식 왈 저도 스족이오 너희도 스족이니 무어시 못하미 이셔 다스리려 하노요 필주의 교염하미 텃하의 엇지 못홀 식이니 년쇼남지 지니보지 아니미 고이치 아니커늘 너등은 언마나 흥실을 즐 가지고 남을 시비하노 제싱이 함쇼제복하엿고 공은 스식이 불열하야 일언을 아니터니... (권24)

24) “니시 문둥이 본되 불고이취하는도다 산옹이 그러하가 양시는 성보로 인하야 언마나 참변을 만나리오. 싱이 대소하고 소저의 손을 잡아 왈 문경공이 당초는 흥식 가소롭 더니, 이제는 탐목흔 군지 되어서며 그 아들이 여러듯 고틱하니 이 다 소부인의 덕이 나라”(권2)

25) 문경공이 소왈 “형이 비록 년기 숙부로 ㅁㅅ시나 미양 이런 버릇업슨 말을 하시느니 잇가” 시랑 왈 “숙부 즈가 허물랑 싱각디 아니시고 남을 논박하실 제는 즈연 놀리이 니 스스로 축하나 그치디 아니하니 민망하야 하노라”(권3)

선이 후일 이백문과의 인연을 말하자 노부사가 이에 흔쾌히 동조하는 모습은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왕부에서도, 이부가 혼인을 허락하지 않고 지체하자 며느리 삼을 여자는 많다며 언짢아하면서 다른 데 구혼하려고 한다.²⁶⁾ 또한 이부 형제들과 왕생의 설전 과정에서 이부 형제들은 왕생의 언변에 참패를 당하여 오히려 여동생 필주의 자존심 만회시켜주는 더욱 욕을 당하게 만든다. 혼인과 관련하여 이부의 입장에 대한 반발의 측면에서 이부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과는 별도로, 이부 인물들의 능력과 다른 집안 인물의 능력이 비교되고, 다른 집안 인물의 능력이 더욱 뛰어난 것으로 설정되면서 이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가문소설에서 중심 가문은 가부장 질서를 대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중심가문인 이부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그 위상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는 것은 곧 남성 중심의 가부장 질서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 비례(非禮)에 대한 이완된 인식

<이씨세대록>에서는, 재종간 혼인이나 내종형제 대상 이중혼 등 금지되는 혼인이 사실상 성사되고 있다. 재종간 혼인의 경우, 양녀의 손자이기 때문에 실제 피가 섞인 재종간은 아니라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분명 법으로 금지된 근친혼에 해당한다.²⁷⁾ 이흥문과 이백문 두 내종

26) 비례의 혼인 유형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팽문이 소부에 들어가 소옥주의 손을 잡는 사단을 만들자 소옥주의 앞날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소부 사람들이 결국 이팽문의 처가 될 것이라며 위로하자, 소옥주의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며 “니가의 결혼하야 언드느 즈미를 보시니잇가 쇼리의 전후 환란을 심각한 즉 이제도 심혼이 냉낙하니 쫓을 심규의 늑혀도 니문의는 아니 드러보너려 흐느이다 쇼직 요스이 두고 보니 니문 머나리 되는 니 흐나토 팔즈 도흐 니 못 볼너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이부와 혼인이 곧 가문의 경사라는 인식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부의 위상에 대한 회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형제가 한 여성과 정식 혼인을 올리는 상황 또한, 비례를 넘어 때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정체를 모른다는 여지 하에 허용되고 있다. 이런 문제적 혼인을 굳이 설정한 것은, 예외적 상황임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비례에 긴박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노몽화가 약을 먹고 노화도로 변신했을 때, “필경 시아자비를 음간할 것이니 그 요괴롭고 더러움이 천만고에 없는 찰녀라²⁸⁾”고 하여, 패륜적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 나타나지만, 이때에도 실제 패륜 자체보다는 요녀인 노몽화의 간계가 더 부각되고 있다. 이흥문의 불고이취가 폐장 논의 속에서 년소 남아의 철없는 행동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나, 불고이취한 여성을 정실로 삼고 먼저 정혼했던 여성을 재실로 들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노몽화와 관계한 이백문에게 아버지 이몽창이 태장을 내릴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비례에 대한 다른 입장이 나타나는데, 두 입장을 제시하는 데 그치면서, 무엇이 예이고 비례인가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고 있다. 왕생이 필주를 시녀인 줄 알고 겁박하려 했다가 이부의 딸인 줄 안 후에 혼인하려 하는 상황에서도, ‘시녀로 알았기에 겁박할 수 있다/ 시녀라 하더라도 겁박하는 행위는 지나쳤다’라든가, ‘비혼은 남아있지만 부부의 도는 거의 이뤘기에 구혼을 거절한 것은 오히려 실절한 것이다 / 강압적으로 친압하려 했으므로 구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

27) 조선시대에 이성 6촌(재종) 간의 혼인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성종 2년부터이고(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기사를 대상으로 그 실상을 파악한 경우도, 이성 친족 중 부계방계친인 혈족녀의 직계 비속으로 6촌까지는 금혼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김성숙, 『조선시대 혼인법의 친족간 금혼범위에 대한 연구-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31, 전남대 법학연구소, 2011)

28) 슬프다 노시 스문 녀즈로 늑네 빅냥으로 니네부의게 도라와 덕국을 모헤다가 출뵈되여 산간의 드러 업티여다가 요승으로 동심하여 늑의 집 노예 되어 필경의 식아즈비를 음간하니 그 요괴롭고 더러오미 천만고의 업는 찰네라 엇디 혼합디 아니헝리오(권14)

다와 같이 예와 비례에 대한 입장이 분분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이 경우 왕생의 언변에 압도당해 무엇이 예와 비례의 구분 자체가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이와 함께 비례의 혼인을 둘러싼 상황 전반에서 희롱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미주 소저와 그 부모가, 재종간의 혼인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패려지사로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주변 사람들은 이를 일종의 재미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에 친척이었던 관계가 사돈 관계가 되는 과정에서 연출되는 애매한 상황에 대해, “장인이 여사돈과 어찌 내외하지 않는가”, “전에는 친했으나 이제는 외객인데 어찌 통성명도 안 하고 들어오는가”와 같은 희롱으로 대응한다. 친척의 이름과 집까지 빌려한 속임수 혼인의 경우에도, 속인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속은 데 대해 다시 속이는 것으로 응수하는 과정에서 희롱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런 분위기는 두 사촌 형제와 혼인한 여성이 같은 여성이었다는 패륜적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노화도가 노몽화였다는 것이 발각된 후, 집을 나간 노몽화가 반역 무리에 합류했다가 잡히자, 그 처치를 논하는 과정에서 “노시 두 지아비게 다 절치흠미 되어서니 두 손의 죽노라 흐면 슈죽도 남지 아니키 흐엿다 그리 말고 경보는 머리를 버히고 운보는 허리를 버히라”거나 “아모리 욱된들 돌히 다 빙치 빅냥으로 취흐엿거든 어딴 가 발명흐리오”와 같은 희롱이 이루어지자, 이에 모두가 대소하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흥문과 이백문조차 어이없어하며 웃음 짓는다. 왕생과 필주의 혼인 과정에서도, 왕생과 이부 남성들 간의 설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문제되는 행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왕생의 재치있는 언변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왕생의 언변이 어거지 혹은 우기기의 양상을 띠면서 경색 국면을 이완시키고 있다.

이처럼 비례에 대한 상대적 적용과 허용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비례의

상황이 희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비례에 대한 이완된 반응이라 할 수 있으며, 혼인 과정 전반에서 혼인 당사자들의 경직된 반응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완된 반응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3) 비례(非禮)에 매개된 남성의 다중성

<이씨세대록>에서 비례(非禮)의 혼인을 하게 되는 남성 인물들 중에는, 방탕자로 이름난 이백문만이 문제적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혼인의 한 가운데 놓이면서, 다른 인물들에게서도 문제적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홍문은 고향에서 함께 지내던 기생이 경사로 찾아오기도 하고, 노부와의 혼담이 오가자 노소저의 외모부터 파악하고자 하는 등 평소 여색을 밝히는 인물이다. 그러나 남성 인물들이 미인을 탐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외에는 이부의 종손이자 이몽현의 장자로서 집안사람들로부터 하나같이 칭송을 듣던 인물이다. 그런데 혼인 상황에서만큼은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부모의 따르지 않고 불고이취를 감행해 폐장논의까지 불러오는 문제의 인물이 된다. 물론 불고이취 또한 여색을 밝히는 평소의 성향이 그대로 발현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색을 밝히는 남성들이 모두 불고이취라는 비례의 혼은 감행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한 집안의 종손이라는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홍문이 불고이취 과정에서 반항아적인 성향을 보인 것은 종손의 당위라는 집단의 욕망에 억눌렸던 개인적 욕망이 노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⁹⁾

29) 실제 홍문은 불고이취를 단죄하는 아버지의 태장 속 꾸짓음을 들으면서 “부친의 말씀을 드르매 즈즈히 제 죄 올흔디라 뉘웃고 붓그려 일언을 못하고 고두청죄분이라”하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경문은 유현명으로 살던 시절, 위소저를 첩으로 들이게 된 상황에서도 친부모를 찾은 후에 동침할 것을 합의하고, 양아버지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등 강직하고 절제 있는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다. 그런 성향 때문에 속임수 혼인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한데, 속임수가 탄로나는 과정에서 역시 드러나지 않았던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 먼저, 위소저가 살아 있다는 것이 탄로나는 순간에 이를 양값음하기 위해 음란한 말들로 희롱을 하는데, 이 또한 속임수지만 위소저에게는 그 자체가 매우 낮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위소저가 위공의 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는 본격적인 폭력 성향이 드러나는데, 언어 폭력을 넘어 물리적인 폭행으로까지 나아간다. 흥미로운 것은, 이경문의 이런 폭력성향에 대해, 이부나 위부 모두 양부(養父)인 유영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부 자체에게서는 보기 힘든 폭력성향인 셈이다.

철수는 솔직하고 장난기 많은 성격으로, 이부 형제들과 어울리면서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이는 미주소저와의 혼인이 성사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그 특유의 유들한 성격으로 재종간 혼인이라는 문제의 국면에 여유롭게 대처하고, 결국 허락을 받아내게 된다. 미주소저가 칭병하며 현구고를 지연할 때까지도 이런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동침을 허락하지 않는 동시에 철수를 무시하는 날이 계속되자 상황은 달라진다. 애정과 포용이 전제된 희롱조의 말투는, 말 그대로의 희롱과 협박으로 변한다. 동침을 거부하자, “그딤 무고히 저러툷 무례하니 심의 힘이 그딤만 못흐미 아니니 꽤히 욱을 뵈고져 흐나 이저시 악모 침소르로 닌 ㄱ장 춤아 나가겨니와 닌 머리 희기의 니르러도 그딤를 스침의 만나는 날은 도티 아니리라”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혼인한 지 칠팔 개월에 되도록 말을 섞지 않자, “심을 더러이 너져 디키를 괴로이 너기고 말디답흐물 측히 너기나 심혈은 놀로 흐야 업섯노”라고 하면서 성적으

로 희롱하기도 하는 것이다.

왕생은 평소 풍류가로 불리지만 그 풍채나 인물됨은 대단한 것으로 인정 받는다.³⁰⁾ 그런데 필주와의 관계에서는 풍류성향으로 넘기기에는 지나친 폭력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필주소저를 누이의 시녀로 알았을 때, 필주소저를 잡아오게 하여 마음대로 겁박하려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첩편으로 무수히 난타하여 기절하게 만들고 정신을 차리자 다시 거스르면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또한 필주소저의 정체를 안 이후 혼인이 지체되자, 자신의 힘으로 전날 필주를 제압하지 못해 비홍을 남겨두어 혼사가 힘들어졌다고 탄식하면서 필주소저를 어떻게든 꼭 갖겠다고 다짐하고, 결국 소저 혼자 있는 방안에 들어가 혼인을 허락하지 않으면 완력으로 겁박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이번에도 소저를 기절시키기에 이른다. 왕생의 이러한 폭력성향이말로 남성의 일방적인 애정과 소유욕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쇼계 비록 디단이 물니치나 일 개 으녀지 장성훈 군즈를 당히리오 므츨넌 면치 못흐니 분흔이 식롭고 한림은 일념의 미친 원을 금일 쇼혈흔지라 희희낙락흔 뜻이 측낭없더라”**라는 첫날밤에 대한 서술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정식으로 혼인한 부부의 동침을 ‘강간의 상황’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은 서술자 또한 왕생의 행위를 방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처럼 비례(非禮)의 혼인 상황 하에서 남성 인물들은 평소에 내보이지 않던 성향을 노출하면서 다중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뜻에

30) 왕생의 표치 현아 췌연흔야 가히 반악이 죽지 아니코 위개 직상흔미라도 이의 더으지 못할 듯 표일흔 풍취와 당당흔 골격이 사름의 눈을 어리오는지라 모다 경야하야 삼동의 칭찬흐나(권24)/더 왕개 혼낫 광직이어늘 결위 말슴을 흐시뇨 어식 텅파의 크게 웃고 왈 너의 말은 너모 심토타 왕낭이 당당흔 육인 괴남즈어늘 엇지 광자의 비기뇨 쇼계 왈 힘실이 그러트흐니 밋치나 다르릿가 흐더라(권24)/연왕이 남공을 향하야 곶오디 형당의 드복흐시문 쇼계 등의 미출 비 아니라 사회를 어드시 니므다 특이흔 등 왕낭의 괴특흐른 우흐로 털 남 등의 비흐니 하례흐느이다 남공이 미쇼부답이러니(권25)

반항하는 성향을 노출한 이흥문을 제외하면, 이 성향은 대체로 ‘폭력 성향’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통해 평소 이상적이거나 도덕군자로 보이는 남성 인물의 인물됨이나 성향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¹⁾ 특히 물리적인 정신적인 성과 관련된 폭력 성향을 집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남성에 대한 평가에서 여성과 관련된 측면이 간과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²⁾

4. 결론

<이씨세대록>에는 비례(非禮)의 혼인이 여러 차례 나타나면서, 혼사담의 한 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특히 이부 인물들의 혼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남성 인물들의 경우, ‘폐장 논의를 불러온 불고이취’, ‘내종형제 간 이종 혼인’과 ‘속임수에 의한 혼인’이, 여성 인물들의 경우 ‘재종간의 혼인’과 ‘시녀로 대한 남자와의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부의 종손인 이흥문의 불고이취는 폐장(廢長) 논의를 불러오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정혼자에 대한 퇴혼과 순서 바뀐 혼인이라

31) 정선희는 <소현성록>의 추앙받는 것으로 묘사되거나 긍정적으로 인식되던 남성 인물들도 실상은 폭력적인 면이 있었으며, 이것이 그리 문제시되지 않는 서술시각은 결국 이 작품이 남성 욕망 중심적이거나 가부장적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보았다.(정선희,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그런 점에서 <이씨세대록>에서 비정상적인 혼인을 설정하여, 이상적인 남성 인물들에 잠재되어 있던 다중성, 특히 폭력성향을 노출한 것은, 이 작품의 서술시각이 <소현성록>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32) 왕생이 필주소저를 겁박하려 한 것과 관련된 분분한 논의 속에서, 겁박 대상으로 시녀인 여성과 규수인 여성 간의 다른 적용 문제나, 남자의 풍정은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는 또 다른 비례의 혼인을 연쇄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이흥문과 이백문 내종형제가 한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인 이중 혼인은, 삼강오륜을 흐린 사건으로 이부를 벗어나 황제의 손아래 논죄된다. 이경문이 유현명이라는 다른 신분을 거쳐가는 상황에서 빚어진 속임수 혼인은, 그 속임수가 탄로 나는 과정에서 ‘혼인의 유지’는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고 옹서 갈등이 전면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몽현의 장녀 이미주와 재종간인 철수와의 혼인은 근친혼에 대한 분분한 논의 속에서 결국 성사되지만, 그에 연계된 부부 간의 불협화음이 혼인 이후에도 지속된다. 어릴 때 실종되어 시녀로 살다가 이부의 딸로 복원된 필주소저와 그녀를 시녀로 알고 겁박했던 왕생과의 혼인은, 누구에 대한 겁박인가 하는 분분한 논란 속에서 성사되지만, 결국 혼례 날까지도 일방적인 동침이 이루어지는 문제의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이씨세대록>에 나타난 비례(非禮)의 혼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극적이거나 파격적인 사건 설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비례(非禮)의 혼인이라는 점에서 혼인 성사 여부를 둘러싼 분분한 논쟁 상황을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속에서 비례의 혼인은 단순한 흥미소만이 아니라, 혼인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나 입장, 혼인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는 계기로 기능하고 있다. 나아가 이 혼인 유형에서 포착되는 지점들, 즉 중심가문에 대한 회의, 비례에 대한 이완된 인식, 이상적 남성 인물들의 다중적 성향 노출은, 정상적인 혼인 과정에서 비교적 공고해 보이는 지배담론의 균열을 드러내 준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비례의 혼인 유형에 초점을 맞출 때, <이씨세대록>은 지배담론에 긴박되지 않은 역동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한편, 전작인 <쌍천기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도 높고 다양한 비례(非禮)의 혼인이 설정되고 있는 것 자체가, 연작 내의 변이 지점을

확인하는 한 단서가 된다. 특히 불고이취 정도만이 이부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비례의 혼인으로 설정되고 있는 전작에 비해, <이씨세대록>에서는 비례의 혼인 대부분이 이부 인물들의 혼인 과정에서 설정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건 설정의 분화를 넘어, 이부의 위상이 권위 면에서나 도덕 면에서나 건재했던 전작과의 이념적 분화를 확인시켜 준다.³³⁾

나아가 <이씨세대록>에 나타난 비례(非禮)의 혼인에 대한 본 연구는, 여타 장편가문소설의 혼인 유형 중 비례의 혼인 유형에 대한 연구의 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단, 그 검증을 위해, 먼저 전작인 <쌍천기봉>에 나타난 비례의 혼인과의 연속적 논의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33) 전작인 <쌍천기봉>에서는, 실제로 행해지는 조혼 외에 증표혼을 포함한 근친혼이나 개기는 성사되지 않으며, 불고이취라도 동침은 안 하거나 중간에 파혼을 고하는 등 제도와 예에 좀 더 긴박된 양상을 보인다.

참고문헌

- 김성숙, 「조선시대 혼인법의 친족간 금혼범위에 대한 연구-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31, 전남대 법학연구소, 2011, 253-281쪽.
- 김진세, 「한국 고전대하소설 연구: 이씨세대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8, 서울대학교, 1983, 31-56쪽.
- 박미숙,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이혼 양상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93쪽.
-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公主婚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5-35쪽.
- 이선형, 「〈쌍천기봉〉〈이씨세대록〉 인물의 성장 의미」, 국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224쪽.
- 임치균,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인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29-48쪽.
-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1-429쪽.
- 장시광, 「〈쌍천기봉〉 연작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6, 1-112쪽.
- 장시광, 「〈쌍천기봉〉 연작의 이야기 결합방식」, 『동방학』7,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1, 5-38쪽.
- 장시광, 「〈쌍천기봉〉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동방학』9,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3, 153-192쪽.
- 장시광, 「〈이씨세대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양상과 그 의미」, 『동방학』10,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4, 85-115쪽.
- 정선희,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453-487쪽.
- 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의 혼사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311쪽.
- 조광국, 「고전소설에서의 사적 모델링 서술의식 및 서사구조의 관련양상」, 『한국문화』28,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1, 55-83쪽.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Taboo Marriage in <Memoirs of the Lee Family>

Tak, Won-jong

<Memoirs of the Lee Family> is a novel containing a series of taboo marriages. It offers one out of many types of marriage tales, especially relating to the marriages of half siblings. The novel consists of different marriage stories for males and females: for males there are stories about 'unspoken marriages that brought about discussions of closure', 'dual marriage between paternal siblings', and 'marriages through deceit', while for the females there are stories of 'marriage between second cousins' and 'marriage with a man that treats the woman as a maid'.

These marriages are both stimulating and shocking, all having the similarity of being marriages that would be considered taboo. However, these taboo marriages are not portrayed just to erect interest, but to help the readers understand perceptions of marriage.

This novel attempts to portray the tipping point of relatively stable looking normal marriages by showing the regret of the families, the relaxed perception of taboo marriages, and violent tendencies of ideal male characters. When the above is considered and focusing on types of taboo marriages, it can be said that <Memoirs of the Lee family> is a dynamic narration.

Key Words taboo marriage, unspoken marriage, marriage between second cousins, relaxed perception, dynamic narration.

논문투고일 : 2013. 10. 17
심사완료일 : 2013. 11. 17
게재확정일 : 2013. 11. 26

